

2022년 가을 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대로 그리스도를 배움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 안에서 생활함

메시지 15

본과 전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함

성경: 빌 2:5-9, 17

I. 우리는 우리의 본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본으로 취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 안에서 산다 — 빌 2:5-13.

A. 본이신 그리스도를 알려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이 우리 안에 있도록 해야 한다 — 빌 2:5.

1.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으로 취하고 우리 안에 '이 생각이 있도록' 우리 자신을 열어야 한다 — 빌 2:3-5.

a. 생각을 낮추는 것은 이기적인 야심이나 헛된 영광(빌 2:3)과 대조된다. 이것은 틀림없이 우리의 타고난 겹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겹혀이다(빌 2:8).

b.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자신을 낮추셨을 때 이러한 생각, 이러한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 빌 2:7-8.

2. '이러한 생각'을 가지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장 안에서, 그분의 부드러운 내적 느낌과 마음 안에서 그분과 하나 되어야 한다 — 빌 1:8.

3. 그리스도의 생각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이 생각이 살아 있는 것임을 의미한다. 사실상 그리스도의 생각은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인격이 그분의 생각 안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 빌 2:5, 비교 고전 2:16, 각주 1.

B. 그리스도를 체험하려면 우리는 본이신 그분을 알아야 한다 — 빌 2:5-9.

1. 빌립보서 2 장 5 절부터 9 절까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본이 우리 안으로 주입되는 것이 필요하다.

2.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본은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신 분,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영광스럽게 하신 분이신 하나님-사람 구주이시다 — 빌 2:6-9.

3. 주님은 비록 하나님과 동등하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하신 것을, 붙잡고 놓지 않아야 할 보배로 여기지 않으셨다. 오히려 주님은 그분이 소유하신 것 — 하나님의 모습 — 을 내려 놓으심으로 자신을 비우셨다 — 빌 2:6-7 상.

a. 주님은 육체가 되실 때에 그분의 신성한 본성을 바꾸지 않으셨다.

b. 그분은 다만 자신의 외적인 표현을 하나님의 모습에서 노예의 모습으로 바꾸신 것이다.

4. 주님은 '사람들과 같은 모양'이 되셨다 — 빌 2:7 하-8 상.

a. 하나님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신격의 내적인 실재를 의미하며, 사람들과 같은 모양은 그분의 인성의 외적인 겉모양을 가리킨다 — 빌 2:6-7.

b. 그분은 사람들에게 외적으로 한 사람으로 나타나셨지만,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내적으로 신격의 실재를 가지셨다 — 요 1:1, 14, 18, 3:16, 롬 8:3.

c.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의 상태에 이르시어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셨다 — 빌 2:8 상.

5.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하시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 — 빌 2:8 하.

a. 자신을 낮추신 것은 자신을 비우신 것보다 더 전진된 단계였다.

b.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신 것은 그분께서 자신을 비우신 것을 나타낸다 — 빌 2:7-8.

c.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낮추신 것의 절정이었다.

6. 아들께서 기꺼이 자신을 비우시어 창조된 사람이 되신 것은 권위에 대한 복종을 대표한다 — 빌 2:6-8.
 - a. 주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복종의 길을 가기로 결심하셨다 — 사 50:7, 눅 9:51, 막 10:32-34.
 - b. 주님은 “아들이셨지만,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다” — 히 5:8.
 - (1)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순종하셨다 — 빌 2:8.
 - (2) 그리스도는 죽음의 고난을 통하여 이러한 순종을 배우셨다.
 - c. 일생 동안 복종하신 주님께서는 그분의 복종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믿는 이의 순종은 순종의 본이신 그리스도를 취한 결과이다 — 빌 2:8, 골 3:4.
7. 주님은 자신을 지극히 낮추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 빌 2:9.

II.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 안에서 산다면 전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할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전제물이 될 것이다 — 빌 2:17.

- A. 전제물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 앞에 부어진 참 포도주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 출 29:40-41.
 1. 전제물은 기본 제물에 더해지는 것으로서 기본 제물 중 하나에 부어졌다 — 민 15:1-10, 28:7-10.
 2. 전제물로 바치는 포도주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부어졌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시실 수 있도록 부어졌다 — 출 29:40-41.
 - a.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위해 그분 자신을 쏟아 부으셨다 — 사 53:12.
 - b.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쏟아 부어지신, 하늘에 속한 영적 포도주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포도주로서 그분 자신을 쏟아 부으셨다.
 3. 포도는 희생하시는 그리스도,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분이신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그분의 희생에서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의 힘을 복돋아주는 새 포도주를 산출하셨다 — 사 9:13.
 - a. 그리스도는 자신을 희생하여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의 힘을 복돋아주는 포도주를 생산하시는 포도주 생산자이시다.
 - b.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를 접촉하고 그분의 희생하는 생명을 체험한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가 희생의 생명을 살고 다른 사람들과 주님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생산하게 하실 것이다 — 고후 1:24 하.
- B. 전제물은 그리스도 자신만이 아니라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누림과 만족과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쏟아부어지는 정도로 하늘에 속한 포도주이신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적시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 마 9:17, 빌 2:17, 딤후 4:6.
 1. 전제물은 바치는 사람이 누릴 때 그를 채워 하나님께 포도주가 되게 하는, 하늘에 속한 포도주이신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 빌 2:17.
 2. 제물들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적셔진 사람들이 된다 — 엡 3:17, 갈 4:19.
 3. 우리가 주관적으로 체험하는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포도주가 되시며 우리를 극도로 행복하고 즐겁게 만드신다 — 마 9:17, 고후 5:13 상.
 4. 결국 우리는 하늘에 속한 포도주이신 그리스도로 적셔지고 포도주와 하나 되며 심지어 포도주가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전제물이 될 자격을 갖게 된다 — 마 9:17, 고후 5:13 상, 엡 5:2, 빌 2:17.
 - a. 전제물은 주님께서 우리가 되시는 정도까지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것에 대한 주관적인 체험이다.
 - b. 우리는 제물들이신 그리스도를 더 체험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을 만족시키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건축을 위한 전제물이 된다 — 민 15:1-10.